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25.(목) 11:00,
(지면) 2024. 4. 26.(금) 조간

배포 2024. 4. 25.(목) 06:00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에서 2025년 부산 총회 개최 공식화

- 카타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현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1998년 9월 '국제항로협회'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로 세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PIANC'라는 이름은 유지함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하마드항 스마트화 컨설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두에 카타르 항만관계관을 초청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기술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연계(비즈매칭, Biz Matching)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 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카타르와 항만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중동지역의 수출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기업 수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기욱 (044-200-5910)
		담당자	사무관	윤영수 (044-200-5911)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주상호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민범기 (044-200-5961)

